

# ELS 쇼크 후폭풍 ... ELF도 71% 손실

(주가연계펀드)

대형주들의 급락으로 종목형 공모 주가연계펀드(ELF)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 종목형 공모 ELF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70%대까지 떨어졌다.

종목형 공모 ELF가 투자한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들이 손실구간(녹인·knock in)에 진입해 서다. 전문가들은 ELF가 투자한 종목형 ELS의 기초자산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판매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실을 60% 넘는 ELF 많아 펀드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동부2Star50'의 지난 7월 기준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71.28%다. 최근 1년 수익률도 -76.81%다. 공모 ELF는 4종 이상의 ELS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한 ELS가 중도상환되거나 만기상환되면 ELF도 청산된다. 청산이 안 된 ELF 수익률은 투자한 ELS의 평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ELS 평가가격은 외부 기관이 ELS 기초자산의 주가와 남은 만기 등을 감안해 산출한다.

펀드명	설정일	기초자산	수익률	설정액
동부2Star50	2012년 3월2일	LG화학, 현대중공업	-71.28	11.18
KDB2스타주가연동KH-3	2013년 11월11일	기아차, 현대중공업	-64.78	11.48
마이다스2스타주가연동KH-2	2013년 10월21일	KB금융, 현대중공업	-62.22	10.67
KTB2스타주가연동SH-5	2013년 11월4일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62.18	4.28
유리2스타주가연동HSH-1	2013년 10월7일	현대차, 삼성중공업	-51.48	25.63
메리츠2스타주가연동SH-1	2013년 9월9일	현대차, 삼성중공업	-48.77	22.4

\*수익률은 설정 이후 7월 기준

자료: 에프엔가이드

## 종목형 ELS 투자한 ELF

### 대형주 급락에 손실 커져

### 기초자산 주가 하락세에

### 만기 가까우면 판매 고려

### 손실률 60% 넘는 ELF 많아

펀드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동부2Star50'의 지난 7월 기준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71.28%다. 최근 1년 수익률도 -76.81%다. 공모 ELF는 4종 이상의 ELS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한 ELS가 중도상환되거나 만기상환되면 ELF도 청산된다. 청산이 안 된 ELF 수익률은 투자한 ELS의 평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ELS 평가가격은 외부 기관이 ELS 기초자산의 주가와 남은 만기 등을 감안해 산출한다.

동부2Star50이 70%대 손실률

상'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만기 때 많이 떨어진 종목의 하락률만큼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이다. 7일 현재 LG화학 주가(18만8500원)는 53.34% 떨어졌지만 현대중공업 주가(10만1000원)는 70.72% 하락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 4종에 투자한 '유리2스타주가연동HSH-1'의 설정(2013년 10월7일) 이후 수익률은 -51.48%다. 삼성중공업이 기준가격(4만4266원) 대비 55% 밑으로 떨어져 녹인에 진입했다. 현대차도 녹인 가격인 14만5016원에 근접해 있다. 이 밖에 'KDB2스타주가연동KH-3'도 투자한 ELS들이 녹인에 진입해

손실률이 64.78%에 달한다.

◆현재가 아닌 장기전망 중요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ELF 만기와 ELS 기초자산의 주가 전망을 잘 살펴 ELF의 환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리2스타주가연동HSH-1'의 예를 들면, 약 2년 후인 2016년 10월10~12일 삼성중공업 주가 평균이 3만987원 이상, 현대차 주가 평균이 18만4566원 이상을 기록하면 총 20.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삼성중공업, 현대차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현재 손실률(-51.48%)에 개의치 않고 보유하면 된다.

그러나 ELF의 만기가 가까워지고 종목형 ELS 기초자산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환매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 증권사 과생상품부서 관계자는 "종목형 ELF 역시 종목형 ELS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의 주가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된다"며 "ELF 투자에 앞서 종목의 주가 전망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수기자 hjs@hankyung.com

## “도전정신 있는 인재 뽑고 싶다”

### 투자자교육협의회 CEO 특강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국내 10대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규모를 모두 합쳐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금융이 뒤쳐졌다는 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53·사진)은 지난 6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주최로 서울 송실대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비전과 나눔' 강연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한국 금융의 세계화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사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세계화를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조 5600억달러를 굴리는 블랙록을 비롯 세계 10대 자산운

용사들의 운용 규모는 19조달러가 넘는다고 “반면 한국 10대 자산운용사의 운용 규모는 모두 합쳐도 3900억달러에 그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회사나 직원 모두 한 단계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키움증권 사장으로 취임한 탓에 여러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가장 뽑고 싶은 인재로 “도전정신과 의욕이 있는 사람”을 꼽았다. 그는 “길게 보면 미국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이 충만한 사람이 재주가 있어도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을 언제나 이긴다”고 말했다.

이교윤기자 ccot@hankyung.com

## 백화점 빅3, 회사채 현금 상황

### 롯데·신세계·현대 부채 줄이기 위해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빅3’가 일제히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현금 상환하기로 했다. 잇따른 인수합병(M&A)과 투자로 급격하게 불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다음달 3일 만기가 돌아오는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만기 5년)를 차환하는 대신 전액 현금 상환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6월 기준으로 8918억원의 현금성 자산(단기 금융상품 예치액 포함)을 갖고 있다.

롯데쇼핑은 GS백화점, 하이마트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2010년 말 3조 3000억원이었던 총차입금은 올해

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롯데쇼핑이 백화점, 마트 점포 매각과 영구채(신종 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배경이다.

신세계는 내달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1000억원 규모 회사채(만기 3년)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세계도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인데 2012년 10월 서울 반포 센트럴 시티를 1조2500억원에 매입하면서 90%대였던 부채비율이 130%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도 회사채 상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은 데 이어 다음달 9일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만기 3년)도 갚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2012년 5월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데다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마저 잇따라 갚은 덕분에 부채비율이 55%로 떨어졌다.

하현형기자 hhh@hankyung.com

## ASK '2014 글로벌 부동산투자 서밋' 19일 개최

# “해외 부동산 투자 대상 정밀겨냥 필요”

### 국내 최대 부동산투자 포럼 글로벌 투자자물 400명 집결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추홍식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국내외의 부동산 투자 시장의 거물들이 총집결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투자 포럼 'ASK 2014-글로벌 부동산투자 서밋'에서다.

이 행사에는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우정사업본부, 삼성생명, 한화생명,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국내 주요 연기금의 투자담당 수장들과 거캐피탈, 리얼토캐피탈, 토치라이프인베스트먼트, 스탠다드드라이프인베스트먼트, 페트론캐피탈, 그린오크리얼에스테이트 등 세계 정상급 대체투자 펀드 운용사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채권의 대안을 찾아서'란 주제로 채권의 대안으로 꼽히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투자 기회를 조명하고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회를 갖는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한눈에 글로벌 부동산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던 선진국 부동산 시장 수익률이 연 3%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연기금과 운용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투자 대상을 더욱 세분화해 정밀 겨냥하는 이른바 '핀포인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역도 선진국 위주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그린필드 투자(개발 사업)까지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다. 'ASK 2014-글로벌 부동산 서밋'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 행사는 전체 발표자가 42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투자 포럼이다. 세션 발표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 인사다.

세션은 국내외 해외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외 세션은 글로벌 선두권 운용사 수장들이 맡는다. 앤드루 레이놀드 블랙록 전무, 굿윈 거캐피탈 회장을 비롯 제프 크라스노프 리얼토캐피탈 사장, 다니엘 헤플러 토치라이프인베스트



필립 찰스 유럽부동산 자산협회 회장, 굿윈거 거캐피탈 회장, 나라카 드 실바 스탠다드드라이프 인베스트 이사, 프레드 슈미트 그린오크 공동대표

### ASK 부동산투자서밋 주요 일정

오전일정  
기조연설(국내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전략)  
주제발표(글로벌 경제와 부동산 시장)

발표(미국 부동산 대출 상품) (유럽 시니어 커머셜 모기지론의 기회) (글로벌 리츠를 통한 상업 부동산 투자) (유럽 부동산, 기회인가) (미국 시장의 가치 증대 전략) (독일을 중심으로 한 투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사모대출)

토론(국내 보험 빅3의 부동산 투자전략)

오후일정

오후 기조연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전략)

발표(아시아의 부동산 투자전략) (아시아 유흥, 몰류 투자) (일본 투자 기회) (인도 사모투자자의 또 다른 흐름) (중국의 지역별 투자 기회) (동남아시아의 부동산 투자 전략) (아시아 기관투자자들의 행보) (중동, 북아프리카 투자전략)

토론(국내 연금의 부동산 투자전략) (국내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전략)

저녁 기조연설 (KIC의 해외 투자 전략)

VIP 만찬

터스 대표, 나라카 드 실바 스탠다드드라이프인베스트먼트 이사, 케이스 브러스로어 페트론캐피탈 전무, 프레드 슈미트 그린오크 리얼에스테이트 공동대표 등이 나선다.

오전 세션은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과 미국·유럽의 부동산 대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실채권 등 전통 상품을 비롯 전 세계 주요 부동산 상품군을 아우른다. 아시아 지역 투자 상품에 대한 발표가 크게 늘

어난 것이 특징이다. 오후 세션은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아시아 몰류, 아시아 개발사업 등 아시아권 투자를 집중 조명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절세 방안도 다룬다.

◆국내외의 부동산 전문가 총출동 국내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및 부동산 부문 투자책임자도 총출동한다. 기조연설은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과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홍완선 국민연금 CIO, 추홍식 한국투자공사 CIO 등이 진행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 CIO들도 나서 해외 부동산 투자 방침을 소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대체투자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건의도 받는다. 포럼이 끝나고 진행되는 VIP 만찬에는 국내외 연기금 수장들과 운용사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

ASK포럼의 뜻과 신형 ASK포럼 홈페이지(www.asksummit.co.kr), 사무국(02)360-4239(jiwon@hankyung.com)

## 제2기 2014.11.16 ~ 11.22

# 독일 강소기업 & 자동차 테마파크 탐방단

한국경제신문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추진하는 자동차테마파크 벤치마킹 대상인 폭스바겐의 '아우토슈타트(자동차테마파크)'를 방문, 현지의 인프라와 콘텐츠 현황, 마케팅 효과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세계 톱을 달리는 독일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을 배우고 한국형 강소기업 육성 방안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참가 안내**

- 참가일정 2014년 11월 16일(일) ~ 22일(토) / 5박 7일
- 참가인원 총 25명 / 11월 12일(수) 접수순 마감
- 참가비 580만원 (부가세 포함)
- 기타사항 국적이 아랍(일반석 기준), 1인1실(비즈니스 호텔), 독일고속열차 ICE 1등석, 1일 1식 한식
- 참가문의 T. 02)360-4880 / choiseoji@hankyung.com
- 한경이카데미 (http://ac.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 방문예정기업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